

T V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손발 오글오글 애완남 됐어요”

영화 ‘너는 핏’서 연하남 연기 장근석

“월드스타가 되고 싶어요. 인기와 신뢰와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배우 장근석의 꿈은 이렇게 컸다. 연기 경력 19년. 몇 년 전부터 ‘한류스타’란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에게 아시아는 비좁은 모양이었다. 오는 10일 개봉하는 영화 ‘너는 핏’에서 연상녀에게 사랑받는 애완남을 연기한 장근석을 만났다.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에 수출되니까 어릴 때부터 영화에 나온 배우들을 알고 좋아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럴 만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할리우드 배우들만 그렇게 하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우리도 재미있는 영화가 많으니까요.” 그는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할리우드 배우 로건 레만과 대담하면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분위기를 주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자신감보다는 소심한 것 같아요. 언제냐 그때 그때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들고 싶은 게 뭔지 하고, ‘나의 진정한

한 마디일까? 그냥 재미있는 서플댄스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는 그렇게 열리고 당당했다. “제 신조는 즐기면서 살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될 하기가 하면 크게 기사화되고 본질보다 다른 게 이슈가 되는 일이 많아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전보다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사생활이나 즐길 건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스톤에 살짝에 되지 않았지만, 1992년 아역으로 데뷔한 그는 연기 경력으로만 보자면 ‘중견배우’다. TV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만 해도 이번이 7번째 작품이다. 대부분의 아역 출신 배우 중 장근석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하늘이 누나(김하늘)가 잘 받아줘서 편하게 했고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영화인 건 맞지만, 당당하게 했어요. 제가 주눅이 들고 두려워했다면 더



불편했을 텐데... 촬영 전에 좀 걱정하기도 했지만 찍으면서 다 떨쳐낼 수 있었죠.” 이 영화에서 그는 많은 여성 팬에게 사랑받는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만큼 남성 관객에게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방비독대회 '역습의 찬스를 놓친 손찌검' 4회전 1국 3보(39~68) White: 정정호 5단, Black: 조영배 5단 (포스군), (주력관리사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8일(음 10월 13일 丁卯) 운세 정보: 36년생 물은 늪이나 마음은 늪은이와 같다. 48년생 잡념을 떨치지 못하면 분실할 수 있다. 60년생 주변 말에 개치지 말고 소신껏 선택하라. 72년생 내키지 않아도 양보하면 송사도 피해간다. 84년생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58, 89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with their broadcast times.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어, 오하오우 니혼고.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Korean, English, and Japanese content.